

조선인 강제동원 기록물 공개

국가기록원, 故김광렬씨 수집 기록물... 문서·사진 등 2천여권 공개

국가기록원이 재일동포인 고(故) 김광렬씨가 수집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 최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김씨는 40여년 동안 일본의 3대 탄광지역이자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동원지인 치쿠호(築豊)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그의 기록물은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아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실제 확인이 쉽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하는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관련 문서, 사진, 도면 등 2000여권(13만1800여매)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는 건강보험대장, 근로자명부, 화장인가증 등 조선인 관련 명부가 주목된다. 특히 아소(麻生)산업 건강보험대장은 학계 등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다. 생명, 생년월일, 보험기호, 보험 취득·상실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福岡)에 소재한 '가이시마(貝島) 오노우라(大之浦) 탄광 근로자 명부' 역시 피징용자 생명, 생년월일, 일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김씨가 1976년 관련 탄광 노동계 직원을 수차례 방문해 일본 기록물을 수집한 경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어 기록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김씨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사실 규명을 위해 규슈(九州) 지역 400여곳의 사찰을 직접 방문하며 조사한 사찰(寺刹) 목록과 사찰 과거장(過去帳) 100여권도 눈길을 끈다. 과거장은 사찰에서 유골 접수 시 사망자 생명, 유골인치

일 등을 적어놓은 명부다.

김씨는 사찰명, 전화번호, 주지 이름, 유골 유무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유골의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조선인 노동자 모집과 이동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후쿠오카 다가와(田川)군 가와사키(川崎) 탄광의 조선인 노동자 동원 관련 일본 영수증 등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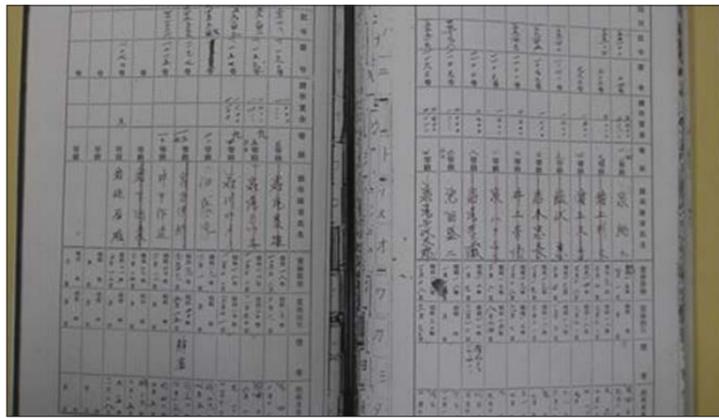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집과 이동과정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추정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관련자료는

이를 뒷받침할 보도원(안내원)·인술자 생명, 철도·숙박 영수증, 가와사키 광업소 조선인 명부(49명), 다가와국민근로동원서(田川國民勤勞動員書)가 가와사키광업소로 보낸 공문서 원본(1944년)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씨가 직접 촬영한 군함도(하시마·端島), 다카시마(高島) 등 탄광 관련 사진과 아소(麻生) 무연고자 묘비위치 지도와 요시쿠마(吉?) 탄광 약도 등이 공개된다.

국가기록원은 김씨 기록물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정리사업을 통해 기본목록을 구축하는 등 급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시



국가기록원이 재일동포인 고(故) 김광렬씨가 수집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

진안군청 이정열 전락사업실장, 정년퇴임기념 서각전시회

재료와 기법의 다양화로 차원 높은 서각예술 부각

진안군청 이정열 전락사업실장은 지난 21일 진안 마이산 북부관광정보센터 2층 전시실에서 '그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서각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1984년부터 시작하여 천직으로 여겨온 34년간의 공직을 6월말 퇴임하는 기념으로 지난 10년간 틈틈이 창작한 서각작품 4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정열 실장은 2009년 서각에 입문하여 2015년 대한민국 문화대전과 아카데미미술대전, 2016년 대한민국 남북통일세계예술대전 초대작가로 등단했다.

현재는 한국서각협회 진안군지부 총무이사로 재임하면서 진안군 진안향토초대작가전 3회, 진안서각회 회원전 8회 입상 등 한중 전 통공예전, 일본 아야정 전통공예전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공모한 제22회 대한민국 공무

원 미술대전 공예부문에서 '청죽무늬'이란 작품을 출품하여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전시기간이 끝나면 구매도 가능하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청 이정열 전락사업실장은 지난 21일 진안 마이산 북부관광정보센터 2층 전시실에서 '그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서각전시회를 열었다.

▶▶ 공연 전시 ◀◀

전북대박물관, 최은순 침선장 전통복식 특별전

굴건제복, 수의 45점 전시... 전통복식 정수 조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최은순 침선장의 전통복식을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전북대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최은순 침선장과 상의의례 복식'을 주제로 박물관 내 최은순 전통복식실에서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 지난 21일 개막식을 갖고 상설 전시된다.

최은순 침선장은 상의례(喪禮) 때 만들어지고 사라져간 굴건제복을 각고의 노력으로 복원한 공로가 인정돼 1998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지정됐다. 그의 노력 덕분에 전라도 굴건제복의 시대성과 지역성, 생활문화적 특성이 오롯이 전승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최 침선장은 이와 같은 전통복식의 역사와 우수성을 일반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전통복식 등 543점을 전북대에 기증했고, 대학 박물관은 2017년 '여천 최은순 전통복식실'을 개관해 그의 다양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최 침선장이 복원한 굴건제복을 비롯해 수의 등 45점이 소개된다. 굴건제복은 머리에 쓰는 굴건(屈巾)과 몸에 걸치는 제복(祭服)을 합친 말로, 상수가 입고 쓰는 삼베로 제작한 옷을 말한다. 수의(壽衣)는 주검에 입히는 옷을 총칭하는 말이다.

/김재훈 기자

이달 30일... 어린이 감성 사운드극 '리틀 뮤지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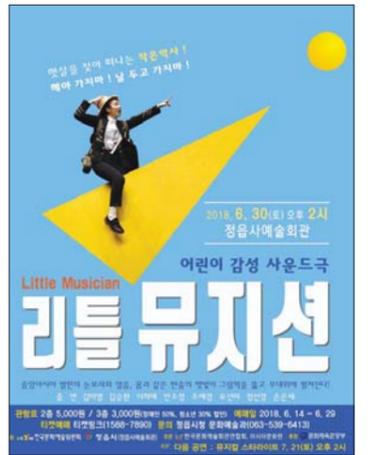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일환

어린이 감성 사운드극 '리틀 뮤지션'이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리틀 뮤지션'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회의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원작은 우즈베키스탄 동화작가 파르하지 라임 하킴비치가 중앙아시아 민담을 소재로 만든 그림책 '작은 악사'이다. 이 작품을 가족극으로 만든 것으로 떠돌이 악사인 주인공 모비치가 엄마처럼 따뜻함을 선물하는 헛살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4D 공간 아트극이다.

공연에서 에어캡은 거대한 눈보라로 뒤덮인 설원이 되고, 샷노란 우드보드 종이는 풍뎉어 버린 세상을 녹여줄 햇살로 변신한다. 관객자들은 "무대 위에서 쉴 틈 없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중앙아시아의 자연을 상상해 보고, 통통 튀는 라이브 음향을 들으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햇살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바탕인 이번 작품이 모든 관람객들이 오래 간직 될 추억과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이다"며 많은 이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관람료는 2층 5,000원 3층 3,000원(장애인 50%, 청소년 30%)이다.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정음=김태환 기자

시민과 익산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 동거동락

익산예술의전당(관장 김영희)은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고 있는 익산시립예술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 동거동락(同居同樂)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배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되는 동거동락은 익산시립예술단이 매년 익산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온 공연으로 도심 속에서 진행돼 산책 나오듯 가벼운 기분으로 남녀노소 누구

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진행되는 동거동락은 매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며 이번 공연을 위해 익산시립무용단의 부채춤, 익산시립풍물단의 장구 Project #1, 익산시립합창단의 축배의 노래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